

18세기 한국의 천문도 渾天全圖

나 일 성

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

17세기말부터 Jesuit교단 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 영향을 받은 천문도가 淸으로부터 조선의 관상감에 전달되기 시작했으나, 영조 시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. 영조 시대에 관상감이 제작한 대표적인 천문도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두 종류는 팔폭으로된 병풍식 천문도이고, 나머지 한 종류만 목판으로 인쇄된 작은 천문도이다. 그런데, 이 세 종류의 천문도 중 가장 작은 이 목판 인쇄된 천문도인 渾天全圖에는 대형인 팔폭 천문도보다 별의 개수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 관한 설명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渾天全圖의 학술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. 이 천문도에 관한 특기한 사실들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.